

수업 중 스마트폰 전면 금지... 학칙 개정 분주

올해 새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도내 초중고 9곳 학칙 보니 '금지' 범위·대상 차이 제주도교육청 공론화 마무리... "학교별 합의 중요"

올해 3월 새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제주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학칙에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학교 구성원 간의 합의를 원활히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초·중·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등과 같이 학교장과 교사가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쓸 수 없다.

본보가 이날 제주시 지역 초중고 9곳(고등학교 2곳, 중학교 4곳, 초등학교 3곳)의 학교제규정을 확인

한 결과 모든 학교가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항을 담고 있었지만, 그 범위와 방식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 중 7곳이 '수업 중'을 포함해 교내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썼는데, 나머지 2곳(초 1곳, 중 1곳)은 수업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보관 주제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학교(5곳)가 등교 이후에 담임 교사 또는 특정 장소에 휴대전화를 반납해 보관하도록 했지만, 초등학교 2곳은 기기 전원을 끈 뒤에 학생이 직접 가지고 있도록 했다. 나머지 2곳은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전체 9곳 중 3곳은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어길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같은 차이로 인해 관련 규정을 학칙에 새롭게 담아야 하는 학교의 입장에선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법으로 금지가 됐지만, 점심 시간 등 그 외의 시간에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두고는 학생 지도 부담, 민원 발생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교육부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를 포함한 전국 학교의 학칙 개정 시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온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일률적 지침보다 '학교별 합의'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합의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에는 단순 처벌보다 교육적 지도와 보호자 안내를 병행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등교 이후에 휴대폰을

수거할 경우 보관과 반환, 분실, 파손 등의 책임도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권고문을 지난달 25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에 전달한 상태이다.

공론화위 운영을 담당하는 제주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학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등교 직후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자율적인 관리가 주를 이루는 부분이 실제로 있다"면서 "이렇게 학교급마다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알맞은 학칙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공론화위의 이번 권고문을 2026학년도 학칙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 4개월간 사전 여론조사와 학생·보호자·교사 등 의견수렴, 도민토론회를 거쳐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6일 금요일 음 1월 18일 (10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70%	제주	30%
70%	성산	60%
70%	고산	30%
70%	서귀포	6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3/11°C
모레	구름많음	1/12°C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흐리고 비

제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8°C, 낮 최고기온은 9-13°C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낮 사이 가끔 비가 오겠으며 오후부터 강풍·풍랑에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6:57	달뜨기 21:25
해질 18:34	달지기 08:05

물때	만조 00:09	간조 06:38
	12:17	18:53

자외선지수 낮음 산물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생긴다

제주대병원 정부지원 선정 권역모자의료센터와 연계

제주지역에 고위험 산모·태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이 구축된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올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로 총 74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제주대병원은 본원 2층에 165㎡ 규모로 고위험 산모·태아집중치료실을 설치한다.

전문치료 5개 병상과 함께 간호스테이션, 처치실, 전용 화장실, UPS(무정전 전원장치)실 등이 갖춰진다. 이는 기존 분만실, 신생아

중환자실 등 기존 시스템과 연계돼 상시 가동 가능한 구조로 연내 운영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지역 내 고위험 임신·분만과 신생아 치료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제주대학교병원은 이를 연계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진료체계를 갖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날뛰는 기름값에

'비상대응 체계' 가동

도, 유가 동향 상시 모니터링

제주특별자치도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분쟁으로 도내 석유·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에너지 비축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의 정세와 도내 석유 판매가격·비축 물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실제 수급 여건과 무관하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빌미로 한 생필품, 공산품 등의 '편승 인상'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유가 정보 서비스(오피넷·Opinet)에 따르면 4일 기준 제주 지역 석유 판매가격은 1(리터)당 휘발유 1786.94원, 경유 1801.83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진 여파로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기피르게 상승하고 있다. 5일 제주 시내 한 주유소에 유류 가격이 표시돼 있다.

실내등유 1370.76원으로 분쟁 전인 지난달 27일 대비 적게는 4.86%에서 많게는 10% 이상 상승했다.

현재 도내 주요 에너지 재고율은 가정용 도시가스(LNG)와 가정용 프로판(LPG)은 각각 62.5%, 82.5%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난방용 등유 24.3%, 자동차용 휘발유 25.3%·경유 33.7% 등 일부 품목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최근 기상 악화로 인한 운반선 운항 차질에 따른 것"이라며 곧 재고를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내 전력의 65% 이상이 한 국전력공사 해저 연계선(HVDC)과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되고 있어 분쟁에 따른 공급 차질은 제한적이며 발전용 LNG와 바이오중유도 각각 50일분, 14.5일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축 용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장

변영진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장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테니스협회 임원 일동

축 득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학위

김동진
(부: 김우준·모: 박민정)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작은아빠, 고모 외 가족 일동

축 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외가 친척 일동

축 득

의학박사

임민영

부: 임승찬(현대해상 동영대리점, 애월읍 하가리)
모: 김정림(정관장 노형정, 안덕면 청천리)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平澤林氏錦湖公派大司憲公門中會
會長 林正雨 外宗親 一同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